

교통사고·화재 ‘고의로’…의사·간호사 진료 ‘허위로’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사기 악순환 고리 끊자

〈중〉 판례로 본 보험사기 천태만상

광주·전남에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유형과 수법이 진화하면서 보험사가 감당해야 할 비용 증가로 보험료가 상승해 일반 가입자의 부담이 늘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증가뿐 아니라 공공 보험의 누수까지 이어져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초래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가장 흔한 보험사기 유형은 자동차

- ☑️ 오토바이와 차 고의로 부딪치고 보험금 1억9천만원 편취
 - ☑️ 보험설계사, 지인과 공모 “보행자 받았다” 상습 허위 신고
 - ☑️ 폐가로 남은 부모님 집 불질러 보험금 청구 ‘징역형’ 선고
- 보험범죄 고수익·저비용 행위 인식…보험금 환수 의무화해야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 범죄다.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부터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까지 있다.

배달대행업체 종사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오토바이로 차량의 범퍼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접수를 통해 1억 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험설계사가 직접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도 있었다. 보험설계사인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보험회사에 전화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해 자전거 옆을 지나던 보행자가 다쳤다고 허위로 신고해 24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두 달 뒤에는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승객들이 다쳤으며 83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고 2019년 7월과 8월에는 광주와 진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치료비 명목 등으로 총 7000여만원을 챙겼다.

사고 피해자는 모두 B씨의 지인으로, 이들은 보험금을 나눠 갖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고의로 불을 질러 화재보험금을 타낸 경우도 있었다.

장성에서 농사일을 하는 C씨는 지난해 6월 부모가 사망해 살던 집이 폐가로 남게 되자 이 집이 손

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알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불을 질러 37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보험사기로 신고했고 결국 법원은 방화범 인정해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이 보험사기를 공모해 처벌을 받기도 했다.

회사의 한 요양병원의 원장과 간호과장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환자 14명에 대해 하지도 않은 온열암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남겼다.

환자들은 병원으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비 영수증, 상세내역서 등을 보험회사에 청구해 45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로 인해 의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간호사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보험제정의 부실을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여 사회적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보험사기 범죄로 처벌이 잇따르지만 범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미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험범죄에 관용적인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성준 광주경찰청 보험범죄 담당자는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범죄의식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고수익 저위험 행위로 인식하는 보험범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장운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부장은 “보험사기는 보험금이 누수된 만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피해가 모든 가입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과 함께 무엇보다 보험사기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광주다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금속노조 위니아전자지회가 30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본사 앞에서 구조조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130명 감축 중단하라” 광주 위니아전자 천막농성

금속노조 “정리하고 인원, 생산직 절반 육박…공장 가동 어려워”

광주 위니아전자 일부 노동자들이 ‘정리하고 중단과 경영정상화’를 요구하며 30일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위니아전자지회는 이날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긴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위니아전자와 1노조인 위니아전자

노동조합이 인력 130명을 감축한다는 정리하고안에 합의했다”며 “다음달 14일까지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접수받은 후 회사가 원하는 인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근속·연령·성별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명단도 사실상 발표했다”며 “스스로 퇴직하거나 회사 권고를 받아들이면 통상임금 4개월분에 이자 혜택도 있지만, 버티면 국몰도 없다는 식으로 구조조

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니아전자의 현 상황은 철저히 경영진에 의해 만들어졌다”며 “2020년 당시 프리미엄 냉장고 생산공장 멕시코 이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경영실패 책임을 현장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구조조정 130명은 생산직 사원 절반에 가까운 인원으로, 남은 인원으로 현재 규모의 공장을 가동하긴 어렵다”며 “위니아전자는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경영정상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 서구, 양동 발산마을 ‘건강 마을’ 된다

행안부 공모 선정…양학선 선수 참여 운동코스 개발 등

광주시 서구가 양동 발산마을을 ‘건강 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서구가 제출한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 사업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서구는 발산마을 내 골목과 언덕 곳곳에 운동공간을 조성하고, 건강 관련 점포 및 건강 먹거리 등을 배치해 발산마을을 ‘건강’으로 덧입힌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로컬스포츠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발산마을 출신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 체조선수를 총괄 트레이너로 내세워 특색있는 운동코스도 개발할 방침이다.

서구는 올해 행안부로부터 발산마을 관련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으며, 내년에도 추가 사업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영산강환경청, 폐기물 부적정 처리 업체 적발

전남 6곳 등 9곳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특별 점검을 실시해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업체 13곳을 선정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그중 9곳(광주 1곳, 전남 6곳, 제주 2곳)에서 12건

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위반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한 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

육군 31사단, 내달 2일까지 적 침투 대비 종합훈련

육군 제31보병사단(31사단)은 오는 2일까지 광주·전남 일대에서 민·관·군·경·소방이 모두 참가하는 대침투종합훈련을 실시한다.

31사단은 실전 훈련을 위해 주·야간에 군 병력과 장비 이동이 계획돼 있다며 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31사단은 ▲완벽한 평시 전투준비 태세 확립 ▲대침투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조기에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능력 숙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모든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해 통합방위 수행능력 및 상호 운용성도 향상 시킬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결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봄에 떠나는 그림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